

일주문



월정사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범회 평창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7월 19일 알펜시아 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새평창포럼과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여름캠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은 8월 16~18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청소년 내 꿈 찾기 의지나눔' 여름캠프를 진행한다. (02)723-5101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 템플스테이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 원장 화랑 스님은 8월 3~5일 '가족과 함께 교육요람에서 체험하는 사찰문화'를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054)770-2915



진흥원 수요일법회 열린선원 선원장 법현 스님은 7월 27일 오후 2시 마포 디보빌딩 3층 법당에서 '수(數)를 알면 불교가 보인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문수사 성지순례 구미 문수사 주지 혜철 스님은 8월 17~23일 '부처님을 찾아서 스님들과 함께 떠나는 불교성지' 행사를 성도, 티벳, 아미산, 낙산 대불 탐방을 개최한다.



국민연금 조계사에서 노후설계 강좌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7월 21일~8월 11일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노후설계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02)397-9532

<인사> 10·27지원단장에 최동식 전력정책과장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지원단장에 최동식 국방부 전력정책과장이 임명됐다. 국방부(장관 김관진)는 7월 18일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지원단장에 최동식 국방부 전력정책과장을 임명했다. 최동식(66) 신임 10·27 명예회복 지원단장은 국방부 방산지원과장을 비롯해 예산운영과장과 전력정책과장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홍주연 금강대 졸업생 국비유학 장학생 선발

올해 세계적인 명문인 미국의 조지타운대, 듀크대, 뉴욕대 대학원에 연이어 합격한 홍주연 씨(2009년 금강대 졸업생, 영어통역전공)가 2011년 국비유학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홍주연 씨는 9월부터 미국 조지타운대 대학원에서 분쟁해결학(Conflict Resolution) 석사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화쟁의 실천자 되겠다

박범훈 청와대 불자회장

"화쟁의 실천자로 온 국민이 화합해 종교인들이 존경받도록 앞장 서겠습니다."

청와대 불자들의 모임인 '청불회' 제14대 회장으로 박범훈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사진)이 7월 2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취임법회를 열고 취임했다.

"청불회장이라는 영광에 오늘처럼 가슴이 설레었던 적이 없다"고 말문을 대 박범훈 청불회장은 불자로서 국민화합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박 회장은 "국민들의 마음을 살피고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것이며, 갈등과 분쟁이 아니라 자비와 화합의 기운이 온 나라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화쟁(和諍)의 실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러 종교와 신앙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그래서 종교인들이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일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훈 청불회장은 그동안 예술가와 교육자로서 문화 예술계에서 불교 문화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특히 음악을 통해 부처님을 찬탄 공양하는데 앞장서 왔는데 현재 찬불가로 불리는 '보현행원송'과 같은 교성곡과 '찬미의 나라' 등의 찬불가를 직접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동국대 대학원에서 <한국불교음악사 연구>를 내고 불교음악사를 정립하기도 했다.

최근 불교계와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박 회장은 "사람들이 흔히 청와대를 권력의 중추라고 하지만 청불회원들은 단 한 차례도 권력의 행사가

저희들의 본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불제자로서의 길을 제대로 간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책 수립 또한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축사에서 "박범훈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문화의 힘을 지닌 나라가 되길 바랐다"며 "대통령의 결에서 교육과 문화, 특히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가 주최한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 인공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혜정 정사 스님, 주종단의 스님과 청와대 불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취임법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법어와 각 종단 총무원장 스님들의 격려사와 축사, 前 청와대 불자회장인 홍상표 前 홍보수석에 대한 공로패 전달 등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청각장애인 위한 한글학교 설립 추진

엄재면 원심회 회장

"청각장애인들의 한글교육이 절실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문서작업은 물론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는 등의 기본적인 생활정도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조계사 장애인 포교단체인 원심회 엄재면 회장과 봉사자들은 최근 큰 충격을 받았다. 2006년부터 원심회 활동을 하면서 아가가 빠지도록 수화로 전달을 했지만 회원들이 받아들이는 내용을 알아들은 것은 거의 없었음을 알았다.

7월 초 법회에 참석하는 원심회 농아인을 대상으로 이주민 한글교과 교재에 나오는 기본 30문항으로 테스트한 결과 평균 정답률은 50%가 되지 않았다. 그중 27개를 맞춘 이는 1명, 3개를 맞춘 회원도 5명이나 나왔다. 결국 수화로 전한 부처님말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갔던 것이다. "청각장애인이 스스로도 언어교육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



다. 30대 후반의 청각장애인들은 기본 한글교육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없어 거의 한국어를 모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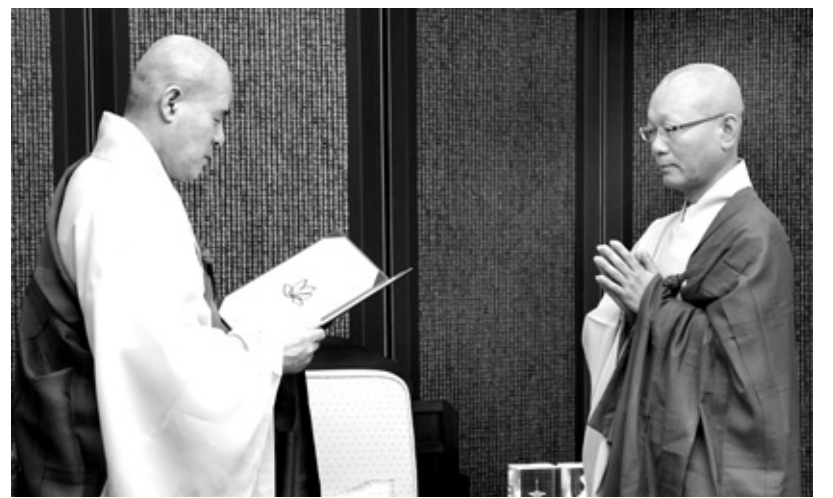
청각장애인은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기본적인 문서작업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국어에 대한 능력이 떨어져 수화 습득능력이 떨어지고 구사능력이 떨어진다. 이렇다보니 청각장애인들은 자신들끼리 문자를 보내고 서로 오해를 하고 싸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청각장애인과 이주여성과의 결혼이 늘어 한글교육이 시급해졌다. 아이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또 다른 소외를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엄재면 회장은 올 9월부터 시범적으로 농아인 한글학교를 설립하고 학생을 모집한다.

학교교육과정은 한글반과 기초한자반, 전문특례반으로 나눠 초등학교 이상의 독해와 작문실력을 갖추고 한글 불교경전을 읽고 독해 가능한 수준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문제는 학교운영이다. 교육공간과 강의로 등 운영비가 최소선 2000만원 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후원회도 좋고 살림살이도 빠듯한 실정이지만 엄재면 회장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글 경전을 읽는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불자격을 포교할 수 있는 포교사의 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02)720-4528 이상연 기자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오른쪽)이 자승 스님에게서 민주본 본부장 및 결사추진본부 상임운영위원 임명장을 전달받고 있다.

결사추진본부 상임운영위원 위촉

지홍·법안·홍선·미산 등 7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임 상임운영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상임운영위원은 지홍 스님(서울 불광사 회주), 법안 스님(불교사회연구소장), 홍선 스님(불교중앙박물관장), 미산 스님(서울 상도선원장, 중앙승가대 교수), 지홍 스님(비구구 중앙종회의원),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장, 신병 중앙신도회 부회장, 임안숙 前 교사불자연합회장

등 7명이다. 또, 민주본 본부장에 지홍 스님이 임명됐다.

이어,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원타 스님(문경 불암사 주지), 성평 스님(의왕 청계사 주지), 심산 스님(부산 송림사 주지), 법진 스님(前 해인사승가대학장), 해강 스님(남원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명법 스님(서울대 강사), 우희종 서울대 교수, 조성택 고려대 교수, 김애주 불교여성개발원장, 지용현 순천 송광사 신도회장 등 9명에게 결사추진본부 위원 위촉장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롯데 간판스타, 불교 간판스타 되다



조계종 홍보대사 이대호 선수

롯데 자이언트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가 조계종 신도등록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7월 1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위촉식을 갖고, 이대호 선수를 신도등록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포교원은 "이대호 선수는 2006년 중단 신도로 등록해, 신도증을 발급 받았으며, 평소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선 행활동으로 많은 불자들의 귀감이

데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교원은 2009년 방송인 이수근, 2010년 산악인 엄홍길에 이어 중단 신도등록 확대를 위해 이대호 선수를 세 번째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

이날 이대호 선수는 "할머니를 따라 절에 다닌 지도 20년이 넘었다. 수행과 참선은 운동을 하는 저에게 꼭 필요한 다짐이다.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이 제 역할인 것 같다. 또한 좋은 경기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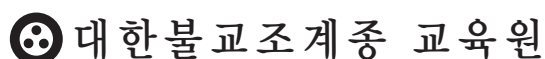
2011년 연수교육 강좌 안내

Table with 5 columns: 과정, 강좌명, 강사, 일정, 신청마감, 교육비. Lists various courses like '사찰경영지도자과정', '스피치능력향상과정', etc.

【유의사항】

- 사찰경영지도자과정 10.12(수~16일) 추가 개설되었습니다.
○ 주지에 처음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스님들은 본만사주지인사규정 제9조에 따라 '사찰경영지도자과정'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연수교육 강좌의 내용 및 강사진, 일정, 교육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체 연수교육 강좌는 적정 인원이상 신청할 경우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5(2011)년 7월



2011년 연수교육 자원봉사활동 안내

아래의 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셔도 연수교육이수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합니다.

- 활동시간 : 총 8시간(사전교육3시간, 자원봉사활동12시간간식, 활동평가3시간)
■ 활동내용 : 생활지원(식사, 목욕, 세탁, 간병, 이·미용 등), 교육지원(학습지도 등), 정서지원(말벗, 안부전화, 상담 등), 사회활동지원(사회적응훈련, 차량지원, 외출동행 등), 여가선용(각종 취미활동 등), 각종행사보조(케мп인, 바자회 등), 재해복구현장지원 등
■ 사회봉사 활동신청 : 아래에 제시된 각 지역 사회복지봉사활동 기관으로 신청하시고, 해당 기관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봉사활동 기관

Table with 3 columns: 사회복지지원, 노인복지지원, 장애인복지지원. Lists various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4 영동포보안인 서울 영동포구 영동동2가 94-31 02-2069-1601

Table with 3 columns: 1 카타시절, 1 어린이집, 1 장애인협회, 1 노인복지지원, 1 장애인복지지원. Lists various community organization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